

# “카드 없어도 신청·결제 가능… 회사별 조건 확인하세요”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꿀팁

오는 27일~내달 8일 1차 신청기간

정부가 1인당 최대 60만원 상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카드사별 신청 조건과 이용 방식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1인당 1개 카드사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능해 카드사별 특징에 따라 이용 편의성이 갈릴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1인당 최대 60만원 상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국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 개시일에 맞춰 카드사별 앱에 관련 메뉴가 신설될 예정이다.

카드사별로 신청과 이용 조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NH농협카드는 자사 카드 보유 회원에 한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자사 카드 미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을 결제에 활용하려면 신청 후 자사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 현대카드는 카드 미보유자도 신청과 지원금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각 사 포인트 또는 전자지갑 형태로 지원금을 지원해 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비씨·농협 자사카드 있어야  
KB·롯데 카드 없어도 신청 가능  
단, 결제시엔 자사카드 발급해야  
하나·우리·현대 카드 미보유자  
지원금 신청, 앱으로 사용도 가능**

도의 상품카드 신청 없이 앱을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 편의점도 각기 다르다.

삼성카드는 계열사 통합 인증과 삼성페이 연동을 통해 간편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과 연동해 계열사 이용 고객

의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인증 없는 지원금 신청을 지원한다.

비씨카드는 넓은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이 특징이다. 전국 8만여 개 가맹점과 네트워크가 연계돼 있어, 비씨카드 '페이북'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우리원(WON) 카드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전자지갑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우리카드 앱 내

전자지갑에 충전된 지원금은 별도의 상품카드 없이 쿼일(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앱에서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 앱을 통해 포인트 또는 전용 충전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앱 내 '사용 내역' 메뉴에서 남은 금액과 사용 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솔(SOL)페이 통합 플랫폼에서 신용·체크카드를 모두 활용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 70%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소멸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 카드 News



삼성카드 김상규 부사장(오른쪽)과 무신사 최재영 부사장(왼쪽)이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삼성카드 무신사 삼성카드 출시

삼성카드는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 성수N1에서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상규 삼성카드 전략사업본부장과 최재영 무신사 최고 커머스 책임자(CCO)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삼성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신사 특화 혜택을 담은 '무신사 삼성카드'를 출시한다. 무신사 삼성카드는 온·오프라인 무신사 스토어 이용 시 추가 적립 등 무신사 회원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무신사 주 고객인 2030의 취향을 담은 카드 플레이어도 선보인다.

## 신한카드-육군본부

## 군 장병 지원 간담회

신한카드는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육군본부와 군 장병을 위한 복지 및 문화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 장희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육군본부는 신한카드가 추진해 온 군 부대 내 '아름인도서관' 설립 등 장병 대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지속적인 군 장병 복지 및 문화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 하나카드, BTS공연 결제 분석 外人 카드소비 555억

하나카드는 최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공연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55억원의 외국인 카드 소비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방문객을 3만 명으로 추산한 뒤, 항공·숙박·음식점·편의점·카페·쇼핑 등 전 업종의 1인당 평균 지출을 소비대가 기준으로 합산했다.

공연 기간 외국인 카드 구매자 수도 약 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1점의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인 티켓을 함께 구매하거나 3회차 공연 중 여러 회차를 직접 관람하는 열성팬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구매자의 32%로 가장 많았고, 대만(12%), 필리핀(7%), 홍콩(5%), 미국(5%)이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비중이 75%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선 기자

# 은행·보험 자본규제 푼다… 생산적 금융에 98.7조 지원

금융위, 부동산·가계중심 자금흐름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에 투입  
은행 74.5조, 보험권 24.2조 확보

금융당국이 은행·보험권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부동산·가계대출 중심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보험업은 장기자산 운용이란 업권 특성을 살려 국가 인프라 및 에

너지 전환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기업대출 여력 74.5조 확대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손질해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정책목적 펀드 특례 명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향 상향 등 4개 과제를 완료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운영리스크 손실 인식 기준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이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정에 반영돼 은행의 자본비율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일회성 대형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내부통제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 보상 완료, 법률 분쟁 종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5대 금융지주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최대 0.26%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부담을 덜어 기업대출과 산업투자 여력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 ◆보험권 투자규제 합리화

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확보한다.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줄여 첨단산업 벤처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이하로 경감한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49%에서 비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한화포레나 단지에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적용

한화 건설부문, E1과 업무협약  
하반기 ‘EV에어스테이션’ 도입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5일 에너지 기업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과 E1 김수근 영업본부

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E1은 충전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한화 건설부문이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E1의 운영 역량이 결합되며, 충전 정보 제공 및 결제·정산 등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통합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한화 건설부문의 ‘EV에어스테이션’은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

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바다 설치형 충전기 대비 커넥터 이동 및 걸림 문제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차 위치에 따른 충전 제약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돼 전기차 충전시설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어온 화재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